

특집 :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기고'

# 협회 사무국 직원 시절을 회고하며



글 · 한성택\*

나는, 1968년 2월,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 하던 중 당시 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최근만 선생의 권유로 협회 직원이 되어 1985년 6월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젊은 날의 대부분을 협회와 함께 지냈다.

이글의 원고를 짧게 쓰라고 함을 이쉽게 생각하며 그 시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기로 한다.

내가 협회 서기로 발령 받을 당시 사무국에는 최근만 국장, 김두홍 총무부장, 유길호 사업부장, 박리범, 임영준, 이명자 서기, 박동선 군 등 9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였으며 그 후 정해성 교수, 김태승 교수 등 여러분들이 협회 직원으로 나와 함께 근무하였다. 이제는 모두 헤어져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분들 모두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협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회의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였던 도서관계 원로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분들은 수시 협회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해주었으며 협회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본인 직장의 일 못지않게 열성과 정성을 쏟아 주었

다. 그 분들은, 때로는 몇일 밤 늦게까지 무보수로 협회의 각종 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솔선하여 처리해 주었으며 당시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도서관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열정으로 헌신해 주었다. 따라서 협회와 그분들과의 밀접도는 참으로 남다른 것이었다. 특히 협회 창립초기에 엄대섭 선생 등 협회를 중심으로 활동 하였던 그분들의 희생적 노고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 도서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다. 그 분들 중 박희영, 김세익, 김두홍, 류동열, 손성우, 현규섭 선생 등은 애석하게도 작고하였다.

협회의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의욕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협회 활동이 갖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징적 현상은 지금도 유사하지만 그 시절에는 더욱 그 정도가 심했다. 예를 들면, 수년간 당면과제로 추진해오던 도서관법 개정 작업이 수년에 걸쳐 몇 차례의 개정안만을 작성해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중앙 부처에 도서관 행정 전담 부서의 설치를 수년간에 걸쳐 건의하였으

\* 전 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 (재직기간 : 1968년~1985년)

나 마이동풍이었다. 어느 해에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하여 도서관 행정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무엇인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1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신명나게 도와주었으나 그 결과는 많은 참고자료의 수집과 150쪽 이상에 달하는 보고서만 작성 되었을 뿐 그 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 뿐인가. 어느 해에는 대통령 연두교서에 「도서관 육성」이라는 짤막한 용어가 포함된 바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당시 문교부와 여당에서는 도서관 육성책을 서둘러 마련하였으나 이 또한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번 반복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협회 활동과 사무국 살림살이의 기반이 되는 협회의 재정 상태는 직원들의 봉급을 두세 달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극한의 재정난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온갖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협회의 어려운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기꺼이 적극 도와주던 현장의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상적인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지냈다. 일상적인 일들 중 도서관학 총서, 도협월보(현 도서관 문화)등 출판사업을 위한 원고수집, 편집, 교정, 인쇄 등의 일, 도서관 대회 등 각종 행사 준비, 전문위원회 활동의 보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 및 IFLA World Wide Seminar 개최 준비와 성공적인 회의 진행 작업, 각종 협의회 조직 관리, 배부함 자료를 수집하고 포장하고 발송하느라 땀 흘리던 일, 당시 협회 관련 부처인 문교부와 경제기획원을 번질나게 드나들던 일 등등은 기억에 남는 일들이다.

이제는 원로 시절의 새내기가 어느덧 중진으로 성장하여 오늘의 도서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그 시절 사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도

서관장과 중견교수가 되어 있다. 오늘의 협회는 회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 규모와 내용 그리고 예산 규모와 사무국의 조직이 크게 확대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 인적구성은 유능한 직원들로 꽉 차여 있으므로 그 결과 활기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협회를 바라보며 격세지감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오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노고와 그동안 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당면과제를 좌절하지 않고 쉼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먼 훗날 그 누가 오늘의 협회를 돌이켜 본다면, 나의 협회 사무국 근무시절과 비교하여 이상의 발전된 모습의 협회로 변모되어 있음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